

# ‘죽음의 조’ 통과한 김학범호... 믿음 그리고 팔색조 전술 비결

### 중국전 고전 이후 선발라인업 대폭 변화

### 중국·이란 차례로 격파 조기 8강행 이끌어

아시아 전통의 강호 이란과 지난 대회 우승팀 우즈베키스탄, ‘난적’ 중국과 한 조에 편성됐다. 이른바 ‘죽음의 조’였다. 하지만 김학범호는 팔색조 전술로 2연승을 기록, 죽음의 조를 돌파해 8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12일 오후 7시15분(이하 한국시간) 태국 송클라의 틴술라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2020 AFC U-23 챔피언십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이로써 지난 9일 중국전(1-0)에 이어 2승(승점 6점)을 기록한 한국은 남은 우즈베키스탄과의 최종전(15일) 결과와 상관없이 8강행을 확정했다.

김 감독에게 ‘죽음의 조’라는 부담감이 있었다. 김 감독은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예산에서 만날 팀도 강하지만, 이제는 아

시아권 모든 팀의 수준이 위로 올라왔다. 조편성이 타이트해 시작부터 긴장감을 놓칠 수 없다. 바짝 긴장해서 준비해야 좋은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경기에서 자신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결과’를 냈다. 김 감독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할 때도 조별리그는 철저히 로테이션 멤버로 성과를 올렸다.

중국전에서 고전한 뒤에도 김 감독은 “다음 경기에는 다른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이날 무려 7명의 선발 멤버를 바꾸며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였다.

4-3-2-1의 전형은 그대로였지만 선수면면이 달랐다. 원톱은 조규성, 중원에는 정우영, 정승원, 이동준을 내세웠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전반 22분 맹성웅의 중거리슛에 이은 이동준의 쇄도로 골을 뽑아냈다. 맹성웅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반 박자 빠른 슈팅을 때렸고, 이를 이란의 골키퍼가 막았지만 튕겨 나왔다.

쇄도하던 이동준이 이를 그대로 마무리, 1-0으로 앞서갔다. 이동준은 이날 골로 지난 중국전 결승골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이후 전반 35분에는 조규성이 두 번째 골을 터트렸다. 조규성은 전반 35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공을 잡은 뒤 강력한 왼발 중거리슛을 작렬, 그대로 이란의 골망을 갈랐다.

지난 중국전에 이어 김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했다. 김 감독은 이후 추격골을 허용했지만, 의도한 전술은 철저히 새로운 선수들의 실험이었다. 지난 1차전 교체 투입된 김진규, 1차전 선발로 나섰다 교체가 아웃된 정승원을 투입했고 자신의 구상안에서 선수들을 시험했다. 결과는 2연승, 8강 진출이었다.

김 감독은 이란전에 대대적인 전술 변화를 시도했음에도 중국전에서 결승골을 넣



은 이동준을 믿었다. 그는 이동준에 대해 “팀에 활력과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선수”라고 칭찬한 뒤 그대로 이란전에 선발 투입해 풀타임을 뛰게 했다. 2연승을 거둔 김학범호는 오는 15일 우

즈베키스탄과의 순위결정전을 남기고 있다. ‘팔색조’ 김 감독의 전술 변화에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8강에서 만날 D조 국가들도 긴장하고 있다.

뉴스1

## 쇼트트랙 최민정, 4대륙 대회 전 종목 싸늘이 ‘종합우승’

### 여자부 금메달 5개 휩쓸어

### 남자부 황대현도 종합우승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전관왕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민정은 13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m, 여자 3000m 슈퍼파이널,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다.

전날 여자 1500m와 여자 500m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민정은 이날 금메달 3개를 추가하며 여자부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손에 넣었다.

1000m에서 최민정은 1분32초712로 우승했다. 한 바퀴를 남기고 선두를 달리던 코트니 리 사라울트(캐나다)를 제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아랑(고양시청)은 동메달을 땀고, 서휘민(평촌고)은 4위를 차지했다.

최민정의 금빛 행진은 상위 8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여자 3000m 슈퍼파이널에서

도 이어졌다. 그는 경기 초반 독주를 펼치며 상대 선수들을 여유있게 따돌렸고 5분 17초13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는 500m, 1000m, 1500m 결승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3개 종목 총점 상위 8명에게 3000m 슈퍼파이널 진출 자격을 준다. 3000m 슈퍼파이널을 포함한 4개 종목 포인트를 합해 종합 순위를 가린다.

최민정은 총점 136점을 따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슈퍼파이널 3위에 오른 서휘민(평촌고)은 총점 47점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최민정은 김아랑, 김지유(성남시청), 노아름(전북도청)과 함께 출전한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4분11초404를 기록, 금메달을 추가했다.

남자부에서는 황대현(한국체대)이 종합우승에 성공했다.

전날 1500m,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가져간 황대현은 이날 1000m에서 1분27초719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황대현은 남자 3000m 슈퍼파이널에서 7위를 기록했지만 총점 103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슈퍼파이널 1위를 차지한 박지원(성남



최민정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선수권대회 여자 1500m, 500m 금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시청)은 총점 47점으로 종합 3위에 올랐다. 슈퍼파이널 2위에 오른 김다겸(연세대)은 총점 37점으로 종합 4위에 지리했다.

남자 5000m 계주에선 황대현, 박지원, 김다겸, 이준서(한국체대)가 6분58초666의 기록으로 1위를 합작했다.

4대륙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비유럽 국가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올해 신설됐다.

## ‘하나원큐 K리그1 2020’ 2월29일 개막

### 디펜딩 챔피언 vs FA컵 우승팀

### 전북 vs 수원 대결로 대장정 시작

### 광주FC 3월1일K리그1 홈 복귀전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13일 ‘하나원큐 K리그1 2020’ 정규 라운드(1~33라운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공식 개막전은 2월29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9시즌 K리그1 우승팀 전북 현대와 FA컵 우승팀 수원 삼성의 맞대결이다.

지난 시즌 아쉬운 준우승을 기록한 울산 현대는 같은 날 오후 4시 FC서울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대구FC는 강원FC를 상대로 DGB대구은행파크에서의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3월1일에는 인천과 포항이 각각 상주와 부산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팀 광주를 성남을 상대로 홈에서 K리그1 복귀전을 갖는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격한 부산은 3월7일 열리는 2라운드에서 광주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 2015년 이후 부산에서 5년 만에 치러지는 K리그1 정규라운드 경기다.

라이벌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는 3월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дер비’는 4월4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처음으로 팬들을 찾는다. 지난 시즌 치열했던 우승경쟁의 주인공인 전북과 울산의 첫 대결은 4월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K리그1 정규라운드 일정은 약 30여개의 조건을 대입해 산출한 일정 가운데 가장 균형 있고 공평한 스케줄을 채택한다.

주요 조건으로는 △동일팀과 경기 후 일정 기간 리턴매치 불가 △홈 또는 원정 연속경기 3회 미만 △ACL 출전팀 일정 고려 △주말(토/일) 홈경기 분산 개최 △평일 금요일 홈경기 1회 개최 △정규라운드와 파이널라운드 간 홈-원정 경기 균등 배정(불가시 정규라운드 상위팀에 파이널라운드 홈 우선배정) 등이다.

뉴스1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